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
- Floordaily: 7월, 미 공장 주문건수 2.1% 감소
- WSJ: 미국 경제, 예상보다 회복력 강해
- WSJ: 올해는 재정적자가 인플레 키우지 않는다
- Bloomberg: 연준 이사, “연준이 금리 인상 신중하게 할 수 있다”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미국 경제 강세로 달러 가치 5개월만에 최고치

[뉴욕시]

- NYT: 뉴욕시의 에어비앤비 단속 시작된다.

[물류]

- WSJ: 서부항만들, 수입업체 유치해야 하는 힘든 상황

[자동차]

- CNN Business: BMW, 장거리 운행 등 테슬라에 대항하는 컨셉카 발표
- CNBC: 중국 자동차 기업들,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수출 경쟁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인플레이션 둔화가 어떻게 기업의 수익에 타격을 주나
- Bloomberg: 월가 기업들, 사내 업무 복귀 강화 조치
- Bloomberg: 마이크로소프트, G42와 클라우드 제휴한다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US Factory Orders Declined 2.1% July

7월, 미 공장 주문건수 2.1% 감소

- 7월 미 공장 주문건수가 지난 4개월 동안 상승하다가 감소했다. 전월에 비해 2.1% 감소해 5천7백94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오늘 화요일 연방 센서스국이 밝혔다. 그 전월인 6월에서 2.3% 상승했었다.
- 공장 주문의 급격한 감소는 내구재 주문이 6월에 4.3% 급증한 후 7월에 5.2%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. 운송 장비 주문이 14.3% 급감하며 하락세를 주도했다.
- 3개월 연속 증가한 출하액 규모는 0.5%인 29억달러 상승한 총 5천7백72억 달러로 증가했다. 지난 8개월중에 7개월이나 증가한 미처리 주문(Unfilled orders)은 72억달러(0.5%) 증가한 1조3천3백20억달러를 기록했다.

Floordaily 기사

WSJ: Resilient U.S. Economy Defies Expectations

미국 경제, 예상보다 회복력 강해

- 안정된 고용과 강한 소비 지출이 보여지고 있는데 팬데믹에 대한 정부의 전례없는 정책 대응으로 경제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다. 40년 만의 가장 공격적인 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다.
- 지난 1년간 민간기업들이 3백10만개 일자리를 늘렸으며 특히 8월에 18만 7천개를 늘렸다. 실업률은 7월의 3.5%에서 3.8%로 약간 상승한 정도다.
- 구체적으로 노동 인력이 늘어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올해 미국인들의 실질 수입이 늘어나 고용과 지출을 늘리게 됐다. 팬데믹 여파로 상품/주택/노동 인구가 줄면서 고금리에도 둔감할 만큼 수요가 분출하게 되었다.
- 여기다 각종 인플레이 감축법, 반도체 과학법 등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이 늘면서 제조업이 추가로 확대되었다.

WSJ 기사

WSJ: Do Higher Deficits Cause Inflation? Not This Year

올해는 재정적자가 인플레이 키우지 않는다

- 연방 적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. 올해 첫 10개월간 규모는 작년 같은 기간의 2배. 이 같은 적자폭 급증은 성장을 자극해 인플레이를 자연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다.
- 그러나 인플레이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. 큰 적자가 높은 인플레이를 항상 유발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.
- 그 원인은 재정 적자를 유발하는 요인 때문이다. 재정 적자 벌어지는 원인은 의회가 대규모 지출 법안을 승인했거나 세금을 감면했기 때문이다.
- 그러나 올해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것은 고용주가 원천 징수한 세금이 아니다. 분기별 또는 연간 세금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. 원천 징수되지 않은 세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2천7백80억달러, 즉 26% 감소했다.
- 그리고 양도소득세 수입 감소나 부채 상환액 증가가 단기적으로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WSJ 기사

Bloomberg: Fed's Waller Says Central Bank Can 'Proceed Carefully' With Rate Hikes

연준 이사, “연준이 금리 인상 신중하게 할 수 있다”

-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“인플레이가 완화되고 있는 경제 지표를 감안했을 때 연준이 금리 인상은 신중하게 진행(proceed carefully) 할 수 있다고 말했다.

-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급하게 조치를 취한 어떤 것도 없다면 다음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. 다음 회의는 이달 19일부터 양일 간 열린다.

Bloomberg 기사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Dollar Soars to Five-Month High as US Economy Powers Ahead

미국 경제 강세로 달러 가치 5개월만에 최고치

- 투자자들이 회복력 있는 경제는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베팅하면서 달러가 최근 5개월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다.
- 오늘 화요일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0.5% 상승해 올해 7월 중순 이래 상승률이 4.5%에 이르렀다. 최근 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2018년 이래 가장 긴 상승세를 보였다.
- 투자자들은 중국과 유럽의 성장 약세와 비교해 달러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다.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과 주가 하락도 이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.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기존의 20%에서 15%로 떨어졌다.

Bloomberg 기사

[뉴욕시]

NYT: New York City's Crackdown on Airbnb Is Starting. Here's What to Expect.

뉴욕시의 에어비앤비 단속 시작된다

- Airbnb와 VRBO 등의 플랫폼을 통해 숙박 시설을 빌려주는 주민들의 서비스를 제한 하는 새로운 규정을 오늘 화요일부터 시행한다.
- 뉴욕시 정부는 이 같은 임대 서비스로 인해 시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부족 현상이 커지고 있다는 입증이다. 일부에서는 뉴욕시가 호텔 업계의 로비에 굴복한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.
- 단속 내용은 뉴욕시 호스트는 뉴욕시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하며, 호스트는 게스트와 함께 숙소에 거주토록 하고 있다. 호스트가 그곳에 살지 않으며 단기 렌트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.
- 단속 내용은 뉴욕시 호스트는 뉴욕시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하며, 호스트는 게스트와 함께 숙소에 거주토록 하고 있다. 호스트가 그곳에 살지 않으며 단기 렌트로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.

NYT 기사

[물류]

WSJ: West Coast Ports Face Hurdles Winning Back Importers 서부항만들, 수입업체 유치해야 하는 힘든 상황

- 서부 항만들은 새로운 노사협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수입업체들 공급망을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.
- 그동안 항만 노사 문제로 인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애틀에 이르는 항만에 수백만개의 수입 컨테이너들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정학적인 긴장과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.
- 일부 전문가들은 많은 수입업체들이 서부 항만대신에 동부 해안과 걸프만 항구의 유리한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. 그리고 수입업자들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투자하는 동남부지역의 제조 성장과 인구 중심지에 대한 접근성을 좋아한다는 것이다.

WSJ 기사

[자동차]

CNN Business: Mercedes unveils new electric concept cars with better range than any Tesla model

벤츠와 BMW, 장거리 운행 등 테슬라에 대항하는 컨셉카 발표

- 벤츠사는 한번 전기 충전으로 4백66마인 이상 주장해 테슬라 차보다 유리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 카를 공개했다.
- 새로운 차량 종류는 세단, 스테이션 왜건, 2종류의 SUV 등 4개 모델이다. 구체적인 생산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.
- 한편 BMW도 최근 유럽 모터쇼에서 긴 주행 거리와 빠른 충전 속도를 보이는 새로운 전기차를 공개해 독일 전기차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.

CNN Business 기사

CNBC: Chinese electric car makers ramp up push overseas, setting up clash with U.S. European auto giants

중국 자동차 기업들, 미국과 유럽 기업들과 수출 경쟁

-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시회 중 하나인 IAA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. 이는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맞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그들의 입지를 확장하고, BMW나 포드 같은 기업들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.
- 중국에서는 지난 몇 년 간 정부 보조금과 벤처 자금 조달에 의해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났다. 그러나, 코로나 제한 조치가 해제

되고 나서도 미온적인 내수시장과 유럽의 매력적인 시장에 결부되어 중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.

- 중국 기업들이 수십 개의 새로운 차들을 출시하는 와중에도 유럽의 많은 전기차 기업들은 전기차 진출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인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WSJ: How Slowing Inflation Can Hit Corporate Profits

인플레이션 둔화가 어떻게 기업의 수익에 타격을 주나

- 미연방 상무부는 2분기 세후 기업의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9.4% 감소했다고 지난주 발표했다. 이는 S&P 500에 등록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2.9% 하락보다 더 큰 감소이다.
- 인플레이션 완화는 수입을 감소시키고, 만약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기업들의 수익이 압박 받게 된다.
- 몇 가지 이유는 먼저, 물가가 인건비보다 빠르게 상승했고 이후에는 인건비가 물가보다 더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. 미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인건비는 4.5%까지 상승한 반면, 물가는 4.1% 상승했다.
- 또 다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의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다. 그래서 기업들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. 그러나,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.
- 또한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이 재무적인 여파를 효과적으로 과소평가할 수 있다. 인플레이션 이후에는 실제 자산 교체 비용이 더 높다.

WSJ 기사

Bloomberg: Wall Street Gets Tough on Return-to-Office Laggards

월가 기업들, 사내 업무 복귀 강화 조치

-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, 3년이 더 된 지금도 월가 기업들은 직원들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
- 최근의 중간 평가에서 씨티그룹의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사내 근무면에 서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. 골드만 삭스는 직원들이 일주일에 5일은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.
- 이달 말에 블랙록은 사무실 근무 기간을 매주 3일에서 4일로 직원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Microsoft Partners With ABU Dhabi AI Firm G42 on Cloud Offering

마이크로소프트, G42와 클라우드 제휴한다

- 마이크로소프트가 ABU Dhabi Ai 기업 G42와 분야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고 아랍 에미리트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이러한 움직임은 UAE 공공 부문과 다른 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에 기반한 AI 기술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, 그들이 현지 개인 정보 보호와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업 관계자는 말했다.

Bloomberg 기사

[보고서]

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금융시장정보 (Shinhan Society Daily Letter)

"투자자들, 미 증시는 채권금리 추가 상승 견뎌낼 것"

미국 투자자들은 증권 시장이 향후 채권 수익률의 추가 상승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

4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통신 조사서비스 'MLIV 펄스 서베이'가 자사 단말기·온라인 뉴스 구독자 3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, 응답자의 56%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4.5%까지 상승해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 500지수의 하락 폭은 10% 미만으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.

'10% 이상 하락'이라고 답한 경우는 20%에 그쳤으며, '그럼에도 불구하고, 상승세 지속'도 24%나 됐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org